

石油불황속의 中東경제

I. 머리말

70년대에 대폭적인 油價인상에 따른 막대한 석유수출 수입을 재원으로 착실한 경제성장 및 경상수지의 대폭흑자를 시현하였던 中東 산유국의 경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석유수요의 감소 및 油價 하락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OPEC(石油수출국기구)의 대폭 감산에도 불구하고 油價는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과거 하루에 10억 달러나 벌어들였던 中東 산유국들은 石油收入의 감소로 재정운용과 국내산업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석유불황이 계속된다면 이란·이라크 전쟁의 영향도 있어 中東 산유국내의 정치·종교·사회적인 모순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中東 산유국들이 국내외적인 시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II. 해외근로자 유입의 억제

1973년부터 80년대초에 걸쳐 석유붐으로 활기를 띤 中東산유국들에는 印度·파키스탄·필리핀·韓國 등 아시아제국과 이집트등 소득수준이 낮은 아랍국가들로부터 많은 근로자가 유입되었다. UAE의 경우 1968년 당시 18만이었던 인구가 해외근로자의 유입으로 83년에는 119만명까지 6 배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인의 급증현상이 이슬람 사회의 전통과 질서유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여기에다 石油收入의 급격한 감소로 고용기회가 줄어들자 부

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어서 해외근로자의 축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7일에는 GCC 노동상 회의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으며, 해외근로자 규제와 노동법의 통일 등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도로, 항만등 사회기반 관련 프로젝트 등의 감소 때문에 GCC 6개국에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취업 인구는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의 인구증가와 자국민 우선고용 움직임을 생각하면, 취업 기회 감소를 웃도는 수준으로 해외 근로자를 축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자본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中東산유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UAE 정부가 공포한 회사법은 자국내에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 반 이상(합작회사의 경우는 100%)을 UAE 자본이 차지할 것을 명기하였다. 지점, 주재원 사무소등 법인형태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100% UAE 자본의 스폰서를 갖도록 법제화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각 관청과 기업에 자격차가 10% 이내이면 자국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다 많은 부를 자국이 확보하려는 교육지책이다.

급속도로 해외근로자를 축출하고 자국민을 우선 보호한다고 해도 전문직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UAE에서는 엔지니어, 의사, 교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장기체류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들 전문직은 용이하게 자국민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이다. 이것이 中東산유국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Ⅲ. 대기업의 파산

中東산유국중 오래전부터 상업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UAE의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여 연안 일대에 서 폭넓게 사업을 전개해 온 가라다리 그룹의 파산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196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건설을 비롯한 금융, 제조업, 부동산, 신문 등 20개 이상의 기업을 산하에 거느리면서 두바이를 대표하는 대 재벌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경영기반은 의외로 약했으며, 이 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주요 은행이었던 두바이 은행의 경영이 부실해지자 금년 4월초 경영권을 넘겨버리면서 UBM(Union Bank of the Middle East)으로 변신되었다.

경영악화로 휘청거리고 있는 재벌은 그뿐이 아니다. 가라다리와 나란히 명문재벌로 꼽히는 알·후타임과 알·그레일은 모두 산하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재고증가와 부동산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알·시라위와 알·타이에르와 같은 신흥 재벌이 서서히 세력을 확대 두바이의 재벌세력 지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기성재벌의 몰락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산유국의 공통된 상황이다. 사우디에서는 건설을 주체로 한 쇼보클 그룹이 공사대금의 지불 연기 때문에 채무 반제 연기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 몇개의 재벌이 경영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아랍 상인은 「공격에는 강하지만, 수비에는 약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石油 불이라는 순풍을 타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재벌들이 석유시황의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Ⅳ.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82년에 쿠웨이트에서 사설 주식시장 마나하 시장의 투기사건이 일어났었다. 이 사건은 연수표를 사용한 주식투기로 끝내는 주가가 대폭락하여 일반 투자가의 손해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해 쿠웨이트의 경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문제가 최근 의회에서 거론되면서 결국 토아이지 법무상은 사임하게 되었다.

민족과는 금년 2월 총선거에서 「마나하 주식시

장」 사건으로 상징되는 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진출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새로이 소집된 의회에서 마나하 사건에 연루된 법무상을 비롯해 회색각료들을 거세게 몰아부치고 있다.

쿠웨이트와 같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으나, 사우디도 石油收入의 감소로 정치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3월초 파드 국왕의 2남인 무하마드 왕자가 하사 州지사로 임명되었다. 이 州지사는 과거 72년간 사우디의 명문 지르위가가 세습해 왔다. 이 지역은 油田지대가 많으며, 이슬람교 시아파 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이다. 지르위가는 사우디의 정치적 조류중에서 파드 국왕의 진보파에 대해 보수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가문은 압둘라 아지즈 초대 국왕이 사우디를 건국하기 전부터 사우디 왕가와 연맹관계에 있다.

사우디에서는 거액의 오일 머니를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라졌다고 해도 하사州는 석유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다. 왕가가 이 州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것도 石油收入이 줄어들면서 경제기반을 확립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번의 하사州 인사는 사우드가와 지르위가의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자, 공무원, 지식인등 사우디의 신 중산층들 사이에서는 의회 개설등 정치 자유화를 요구하는 기운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현상황으로 보아 왕족의 대부분은 자유화가 초래할 결과를 위험시 하고 있는 것 같다. 쿠웨이트 의회의 교훈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군주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Ⅴ. GCC 공동방위 강화

GCC(페르시아灣 협력회의)는 페르시아灣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열기와 이란·이라크 전쟁이 불붙기 시작한 1981년 5월 연안 군주국가들의 집단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이란의 혁명수출」 위협에 결속하여 대항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당초에는 이란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EC와 유사한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GCC가 마침내 군사동맹으로 크게 진출했다.

RDF(긴급 배치 군)가 최근에 와서 창설을 보게된 배경 중의 하나도 산유국을 엄습하고 있는 재정난이다. 연안제국은 「이란의 혁명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아랍 방위 전쟁」을 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 자금원조와 석유대체 수출 형태로 80년 9월 개전 이래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해왔다. 일종의 안전보장료이지만, 이란·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연안제국에게는 이 부담이 점차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GCC는 앞으로 수년간 RDF를 강화하는데 6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원조금액을 줄여서 스스로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란이 이라크령의 남부전선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남부에 많은 시아파 주민이 호응, 국경선에 인접한 쿠웨이트도 시아파 혁명의 폭풍에 휩싸이고, 사우디에서도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정치정세가 불안해진다」- 이것은 연안제국이 가장 우려하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물론 군사력을 비교하면, 공군력은 어찌되었든 GCC로서는 여전히 이란과 직접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그러나 서방측 외교 소식통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단시간 저항할 수 있고, 美国이 지원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군을 페르시아만에 주둔시키지 않고, 수평선 저편에 배치하여 연안제국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전력을 보강한 것이다. 그러나 GCC의 군사동맹화에 이란이 경계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美国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오만은 「아랍제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오해를 이란이 가질 수 있다」며 RDF에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란 對 이라크, GCC라는 양극 대립으로 발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Ⅵ. 급격히 감소된 해외자산

사우디 정부는 84년도 재정적자를 127억 7천만

달러로 발표했으나, 리야드의 외국은행 소식통들은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적자액은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산에서는 石油收入을 420억 달러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344억 3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에 발표된 85년도 예산은 세출, 세입 모두 554억달러의 균형예산을 짜놓고 있으나, 전년도 실적 20% 증가한 收入은 예산에 넣지 않고 있다. 최종적으로 11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외국은행 소식통들의 예상은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정부는 휘발유를 비롯한 전력, 수도사용료의 인상, 소매수매가의 인하등 세출 삭감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공무원 수당에 있어서 연수, 출장 등의 수당은 50% 삭감,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의 25%로 한정(종래에는 50%), 주택수당은 전면 삭감, 수도, 전기, 전화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했다.

해외자산도 최근 3년간 크게 감소하여 이라크, IMF, 세계은행 등에 대한 융자분 400억 달러를 제외하면 700억~90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84년도에도 재정적자 130억 달러를 모두 해외자산을 처분하여 보충하였다. 아무리 富를 누리고 있는 사우디라도 다음 세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이상의 자산 처분은 삼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로시장으로부터의 협조 융자 도입액은 83년에 13억 2천만달러, 84년에는 22억 3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오만이나 쿠웨이트가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반면 사우디는 개별안전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Ⅶ. 민간부문의 비중 강화

사우디에서는 84년 9월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주역이 될 NIC(국가산업화공사)가 설립되었다. 자본금 1억 6천600만 달러의 95%는 순민간 자금이다. 이 公社는 뒤지고 있는 첨단기술과 소비재 분야에서 합병사업, 기존민간사업에의 자본참가등을 담당하게 된다. NIC는 사우디의 민간노선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경제의 석유의존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다각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

유로시장으로부터의 협조투자 도입액

(單位：백만달러)

	1983	1984	1985.1/4
바 레 인	169	24	—
쿠 웨 이 트	551	488	119
오 만	458	890	400
카 타 르	—	100	—
사우디아라비아	1,322	2,233	448
U A E	750	320	112
아 르헨티나	1,750	3,700	—
인도네시아	2,222	1,890	30

페르시아灣의 군사력

	이 라 크	이 란	GCC
육 군	600,000명	250,000명	108,800명
해 군	4,500명	20,000명	7,500명
공 군	38,000명	35,000명	21,000명
작 전 기	약 580기	95기	358기
핵 명 방 위 대	—	250,000명	—

인다. 사우디는 석유화학, 철강, 비료등 기간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SABIC(사우디 기초 산업공사)의 민영화에도 착수했다. 이미 주식의 30%가 민간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75%까지 민간 보유로 넘길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타 연안제국에도 파급되고 있다. 아부다비, 오만, 카타르, 바레인등 4 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걸프항공」은 주식의 49%를 민간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은행과 매각수속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자본의 도입을 발판으로 대서양 노선의 확대와 신여기의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

UAE도 광범한 민간 활성화 조정책을 도입하였다. 토지, 건물의 무상제공, 전력·수도 요금의 할인등을 계기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연안제국의 전체 과제로서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어 GCC에서 공동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활력 붐의 배경에는 말할 것도 없이 석유收入이 대폭 감소하고 정부 주도형의 경제개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정이 있다. * 〈일본경제신문 6/13〉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 레 인	카 타 르	U A E	오 만
총 병 력	12,500명	51,500명	2,800명	6,000명	43,000명	21,500명
작 전 기	49기	203기	—	11기	43기	52기

近刊 石油圖書案内

國內에서 唯一하게 發刊되는 國內外石油資料의 集大成

85年版 石油年報

—大韓石油協會 企劃部—